혼신 부처님 "마야관음"을 아십니까?

"맞네내변청" "맹이허가하량켤 한클 와 며한힌 서 다."

불(火)이 바람(風)으로

현세 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당신"과 "가족"을 지켜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또한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 모셔오면서 혼이 그대로 배인 "마야관음" 상에 합장 배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을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이 흔적조차 남길 수 없다면, 정말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의업계와 석재업계에서는, "결국 묘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야관음"은 바로 이런 쓸쓸한 날을 대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마야관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자애로움과 자비화현 관세음보살의 숭고한 원력을 지닌 분입니다.

생사를 초월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나투시며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 살아서 지닌 호신불 "마야관음"은 죽음의 그 순간과 그 이후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감 속에 모셔진 "마야관음"
불감 크기 97mm/폭 65mm/ 깊이 45mm



▲ 확대

▲ 실물 크기의 "마야관음"
높이 75mm/ 직경 18mm

"마야관음"은 이렇게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 **일상생활에서**

-집에 모시고 늘 기도합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스승님 친지 등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선물로 대단히 좋습니다..

● **본인 사후**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 관에 "마야관음"을 함께 넣어서 정토로의 동행이 가능케합니다.
-유가족들은 조상님이 생전에 모셔왔던 "마야관음"을 봉양하면서 기도하고 고인의 음덕을 기릴 수 있습니다.





"마야관음" 세트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1. "마야관음"상 - 화인 세라믹제(금색 처리)
2. 석영유리 진공캡슐 - 화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야관음"을 보호하는 캡슐.
3. "마야관음" 불감 - 다이캐스팅 제본의 금도금으로 처리된 불감형식의 상자로 "마야관음"을 모셔두는 곳.
4. 마야관음 보호 도기 - 회장할때 마야관음을 모시는 케이스
5. 호신용 주머니 - 호신용으로 마야관음을 몸에 지닐 때 사용
6. 금속 명패 - 고인의 이름을 써 넣는 금속판.
7. 유언 용지 5매





"마야관음"은 호신불로 늘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모실 수 있는 크기 75mm의 관세음보살상. 돌아가신 뒤 1200 C로 화장되는 그 순간에도 원래 당신의 모습 그대로 금색의 불상으로 화현하면서 고인의 영(靈)을 봉양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고인과 함께 사바세계를 빠져나와 정토로 영접하고자 하는 원(願)으로 특수 최첨단 공법과 지극한 지성으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 입니다.

대리점 모집

불사를 함께 펼칠 대리점을 널리 모집합니다
상담 : (02)461-2037 / (017)320-0003

덕우코퍼레이션
구입 문의 (02)461-2037 017-320-0003